다산포럼

여름밤 바람 따라 떠나는 기억 여행

유 지 나
동국대 교수

태풍들이 오고 간다. 너구리가 가니, 나크리가 지나가고, 이어서 할롱이 바람과 비를 몰고 빠져나간다. 태풍이 올 때마다 어디로 흘러갈지 정확한 방향을 모르니 기상 정보를 주시하라는 뉴스를 흘려듣는다.

인간이 이렇듯 자연의 변화무쌍함만 예측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뇌세포와 몸의 흐름에서도 기억이란 복병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열기에 젖어든 어느 여름 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2013 실뱅 쇼메)을 보고 관객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기억이 뒤엉키며 꼬리를 물고 흘러가 잠 못 드는 열대야를 보냈다. 바로 그런 밤, 인간과 함께 살아도 길들여지지 않는 고양이의 야성을 살린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를 듣고 또 듣는다.

"쓸쓸한 거리/ 달빛도 기억 위 홀로 웃고 있네요/ 발끝에 뒹구는 시든 낙엽들도 슬프게 웃네요/ 불빛들은 하나둘 모습을 감추고/ 어둠이 조금씩 깊어지면 곧 아침이 오겠지요."

슬프게 웃는 게 무얼까? 아마도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주인공 폴이 그런 존재일 것이다. 댄스교실에서 미뉴에트 춤을 가르치며 귀족다운 품위를 유지한 채 살아가려는 두 이모와 함께 사는 폴은 피아노로 춤곡을 연주한다. 그런 그는 이모들 말을 잘 듣는 착한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뭔가 깊이 슬퍼 보인다.

그가 아래층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를 만나면서 기억의 문이 열리고 드라마도 흥미진진해진다. 아스파라거스 차와 마들렌이 마법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차는 풍요롭게 우거진 실내 정원에서 마담 프루스트가 직접 재배해서 만든 것이다.

드라마의 핵심은 폴의 슬픈 미소 뒤에 은닉된 아픈 기억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두 살 때 부모를 잃은 후, 폴은 망각과 함께 말하기를 잃어버렸다. 귀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가 되지 말고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밀어붙이는 이모들, 그랜드 캐넌으로 떠나 웅장한 자연을 마주하는 꿈을 가진 레슬러 아버지, 그 가운데 아기 폴에게 하고픈 일을 하라며 격려하는 유일한 존재는 엄마뿐이다.

폴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그저 '사랑 한 숟가락, 꿀 한 숟가락'이 아기에겐 필요할 뿐이라며 노래해 주던 엄마의 잔영, 이제 그것이 아스파라거스 차와 함께 마들렌을 한 조각 베어 물며 복원된다.

이런 장면은 곧 마르셀 프루스트를 불러낸다. 한 잔의 홍차, 그 홍차에 살짝 적신 달콤한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면, 그 내음과 맛에 실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떠나는 기억 여행이 시작된다.

17년간 기억의 흐름을 따라 써내려간 이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걸작으로 유명하다.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해서일까. 이 소설은 단번에 읽어내기 힘들어 이십 년째 읽었다 말았다 반복하는 내 인생길의 도전 목록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1세기 눈부신 뇌과학의 성과와 맞물리면서, 이 소설이 기억에 관한 뇌기능의 탐구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후각이 뇌의 편도체에 연결되어 기억이 되살아나는 '프루스트 현상'은 뇌의 진화과정 연구에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 우리의 뇌는 좋은 향기, 아픈 향기 저마다 사연이 있는 기억을 끌어낸다. 그런 점에서 후각은 감정과 추억을 자극하며 과거로 이동하는 기억의 타임머신 연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어떤 이들은 "골치 아픈 과거, 기억해서 뭐하냐?", "현재도 살기 힘든데, 미래를 생각해야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인간 뇌는 과거와 현재, 미래도 연결하는 연상과 감정처리 세포들이 망상 조직처럼 연결돼 생명을 유지한다.

아파도 기억에 직면하는 힘이 자아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폴을 통해 배운다. 폴이 기억에 직면한 후, 말도 하고 연애도 하니까.

'명량'(2014 김한민)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지휘하며 330척이나 되는 왜군을 무찌르는 장관. 울고 도는 진도 울돌목은 세월호의 아픔을 연상시킨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억의 약속을 지키려는 시민운동이 첫발을 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아프니까 잊자"는 자발적 망각증은 유사한 아픈 현실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걸려들게 만든다. '세월호 기억저장소' 건립은 기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우리 뇌세포처럼 서로 연결된 고리란 점을 깨우쳐 준다.

社 說

광주지하철 잇단 고장, 승객들 불안하다

광주도시철도 지하철 전동차가 고장나면서 상행선 전 구간이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 난 전동차는 역사(驛舍)에서 정차해 대피 소동은 없었으나 승객들이 출근시간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41분께 광주시 서구 돌고개역 인근 철로에서 평동 발(發) 소태 방향으로 달리던 전동차 (1022호)가 고장을 일으켜 상행선 전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고 한다. 철도공사 측은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뒤따라 오던 지하철 6대도 역에서 정차하도록 한 뒤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일부 승객은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최근 잇단 안전사고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갖추지 못했다.

지하철공사는 사고 원인을 일단 전동차 자체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동차는 50분 후인 8시30분께 복구가 완료돼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이다. 하지만 광주 지하철이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중단된 게 올들어 두 번째라는 점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께도 광산구 도산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 바퀴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20여 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2004년 4월 개통 이후 운행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서 고장 주기가 짧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많다고 한다.

지하철 사고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서울지하철 추돌사고에서 보더라도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 작은 사고라도 잦아지면 큰 사고를 부르기 십상이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진단과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시민의 발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 살기 불편하면 누가 찾겠나

나주를 비롯한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매우 저조하다. 지금처럼 사람 발길이 뜸하다면 애초 수도권 분산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 배치된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140여 개 공공기관이 나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도시는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주에 들어선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 총 1409명의 임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는 전체의 17.3%인 24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내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아파트 1만7952세대를 포함해 5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가족 이주율이 낮은 것은 교육과 문화, 교통 등 생활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덜 끝나 먼지가 날리는 생활여건 때문에 가족들은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주저해 가장(家長)만 현지에서 근무하는 '두 집 살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한다면 인구가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멀어진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주택 취·등록세 감면 등 유인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은 보육과 교육시설 확충이다. 젊은 직원 가족 입장에선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절실하다. 대다수가 자녀교육에 때문에 선뜻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만큼 좋은 여건을 갖춘 가칭 '혁신 중·고교'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

또 영화관,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도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가족들을 혁신도시로 불러들일 수 있다.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숲을 이룬 채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혁신도시라면 '속빈 강정'일 뿐이다.

기 고

광주에 트램(Tram)이 달리게 하자

〈노면전차〉

오 은 열
성결대 교수

트램(Tram)하면 왠지 낯설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트램을 Street car, 路面電車(노면전차)라 하여 '도로상의 일부에 부설한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차'라고 되어 있다. 한때 추억과 낭만을 실은 도시의 명물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일제강점기 등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트램을 볼 수 있다.

한때 사라졌던 트램이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승용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하철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버스의 장점인 접근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때문에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측면에서 트램이 이제는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도시공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도시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선,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보면 트램은 자동차가 점유한 도시 공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요 수단의 역할이 가능하다. 지하로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처럼 오히려 자동차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로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건설 및 운영비용이다. 지하철과 경전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기존 전차와 달리 노면과 실내 바닥의 높이가 30~35cm에 불과해 별도로 역사를 지을 필요도 없다.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으니 건설비 및 운영비가 지하철의 1/8, 경전철의 1/3 수준이고 전기로 가동돼 매연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화 즉 관광상품으로서 그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 추억과 낭만의 전차운영으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자노릇도 가능하다.

예컨대 내년이면 광주에도 고속철도(KTX)가 완전 개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온다. 이를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의 기능과 연계시켜 동·서 간 교통혁명을 이루는 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송정역에서 구도심인 금남로를 지나 무등산을 올라보고 무등산 입석대·서석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트램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트램 운영으로 도시가 건강해진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상부 도로 공간은 가급적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적인 관점이다. 도시정책수단으로서의 트램 사업은 도시공간의 재조정, 또는 도시재개발을 수반하므로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심에서 이용객이 자가 승용차 없이도 불편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의 천국이고, 시민의 도시라고 하는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우리에게 그 시사점을 잘 던져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시는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할 순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 트램은 분명 도시를 바꿔주는 도시정책수단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에 활용될 수 있는 기대감도 가져 볼 수 있는 꿈의 수단이 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도시교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트램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계획시스템 토대 마련과 보행자가 우선시되고, 구도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의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無 等 鼓

명량과 군도

극장가에서 '7말8초(7월말 8월초)'는 연중 최대 성수기다. 이 때가 학생들 입장에선 학원 방학 시즌이고 직장인들의 피서도 절정을 맞는 시기인 탓이다. 마땅히 피서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화 관람만한 피서 대안도 없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유독 많은 이유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관람객 수 상위 1~3위가 모두 이 때 개봉했다. 아바타(1330만 명·2010년 8월), 괴물(1301만 명·2006년 7월27일), 도둑들(1298만 명·2012년 7월25일)이다.

올 여름에도 예외 없이 블록버스터 영화가 7말8초에 관람객들을 찾았다. 1주일 시차를 두고 개봉한 군도(7월 23일)와 명량(7월 30일)이 대표적이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많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는 점. 국내 영화계를 대표하는 출연진 등 호화 캐스팅. 지역 관람객 입장에선 나주와 지리산(군도), 진도와 해남사이 바다인 울돌목(명량)이 배경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성적표는 천양지차다. 군도가 개봉 3주째를 맞지만 관객 500만 명을 갓 돌파해 손익분기점(55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명량은 국내 최단기간 1000만 명 돌파에 이어 1100만 명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아바타를 넘어 역대 최다 관객동원 기록 달성은 시간문제다.

흥행 성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시나리오의 구성력, 배우들의 연기력, 배급사와 개봉관 수 등 마케팅 능력 등등. 군도는 하정우라는 걸출한 배우를 내세웠음에도 민란의 시대라는 부제와는 어울리지 않게 의적떼의 활약상보다 악역(강동원)에 과도한 비중을 둔 점이 실패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명량도 아쉬움을 남겼다. 김한민 감독의 이전 작품인 '최종병기 활'에서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과 시나리오의 탄탄함은 덜했다.

결국 두 작품의 성패는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지도력 부재가 가른 것이 아닌가 싶다. 관객들은 가벼운 터치의 군도보다 진정성이 배어나는 명량을 선택했다. 이순신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청춘 톡·톡

내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던가?

박 민 구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 자신이 생각해 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순수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장래희망이라고 여기며, 어린 아이들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의사·과학자·선생님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한 매체에서 초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1980년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대통령, 2010년대 장래희망 1위 공무원. 결국,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실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존재가 되었고 그 영향을 어린아이들도 피해가지는 못했나보다.

요즘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어렸을 적 자신의 꿈을 그대로 좇아 준비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이는 강의시간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중에도 많이 발견된다. '너는 꿈이 뭐니?'라는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이 모두 획일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회라는 틀 안에 박힌 채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라는, 꿈이 아닌 목표를 이야기한다. 과연 그것이 젊음을 지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들에게 알맞은 정답인가?

문제는 사회다. 지금의 사회는 어렸을 적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만 전념해야 하는 곳이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 막혀 좋은 대학을 위한 준비과정을 밟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과 도서관에서 보낼 뿐 자신이 하고자 했던 준비는 뇌리에서 잊혀 진지 오래다.

물론 공무원과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창 꿈을 키울 나이에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 막혀 꿈을 선택하게 되는 현실이 씁쓸한 것이다.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성에 기인한 꿈을 꿀 시기임에도, 현실에 안주하며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진다.

요즘 대학가에는 많은 광고지가 붙어있다. 대부분 공무원 시험, 토익, 어학 등 사회가 정해놓은 막연한 선택지로만 가득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보고 지나치진 않는다. 한참을 광고지 앞에 서서 고민하며 선택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 속 사람들이다.

가끔씩 '너는 먹기 위해 사니? 살기 위해 먹니?'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질문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데 진짜 먹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 취업난에 고통받는 대학생,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직장인 또한 아니라고 쉽게 대답하진 못할 것이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로 생각이 바뀐 우리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사회라는 시선과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 아닌가? 자신의 미래는 그 누구도 만들어 줄 수 없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해보면,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현실이나 사회는 나를 간섭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 된다.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꿈이 단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어렸을 적 순수하게 생각했던 꿈들을 이제 다시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춘톡톡·기고 환영합니다

청춘톡톡·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